

현재는 미래의 기반이다.

오늘 나무의 주님, 아버지는 그의 나무의 첫 번째 잎들을, 즉 나무를 위한 지원의 형상인 고귀한 영혼들을 보고 있다. 브라민 영혼들은 새로운 나무의 묘목들이다. 새로운 나무의 기반은 묘목이다. 영혼인 너희 모두가 새로운 나무의 묘목이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들 모두 매우 귀중하다. 움직여 나아가는 동안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귀중한 지원의 형상, 나무의 묘목이라 여기느냐? 묘목에 어떤 약점이 있든, 나무 전체가 그 약점을 가질 것이다. 너희들 각자에게 이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아직 어리거나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책임은 더 오래된 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겠지?

너희들은 각자 새로 왔든, 늙었거나 젊든, 유산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다 갖고 있다고 여긴다. 너희들 중에 달 왕조의 일부가 되는 유산을 받으려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각자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 너희들은 또 합류시대의 성취와 아버지께 대한 권리를 온전히 다 받았다. 너희들은 바바가 첫째로 더 어린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더 어린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너희는 “바바는 나의 것이야”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권리를 다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사랑을 가지고 권리에 관해 얘기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와 성취에 대해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너희가 젊거나 늙었거나 각자 그것과 같은 정도로 책임에 대한 권리도 역시 가진다. 너희들 모두 동반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계속 발전해라. 그들 자신과 세계 변화에 대한 책임의 왕관을 쓰는 자들은 세계 왕국의 왕관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것이다. 합류시대에 이 왕관을 쓰는 자들은 미래에도 역시 왕관을 가질 것이다. 만일 이 왕관을 지금 쓰지 않는다면 너희는 미래에도 역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현재는 미래의 기반이다. 지식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합류시대의 너희들의 브라민의 모습과, 미래 너희의 신인 지위의 모습, 두 가지를 다 체크해봐라. 너희의 양쪽 모습을 다 검토해보고 브라민 생에서 너희가 2중의 왕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왕관이 하나뿐인지 체크해봐라. 하나는 순수성의 왕관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의 실제 삶에서의 공부와 봉사의 왕관이다. 두 개의 왕관이 서로 같으냐? 그것들이 완전하고 완성되었느냐, 아니면 뭔가 빠진 것이 있느냐? 만일 여기서 너희의 왕관에, 즉 순수성의 왕관이나 공부와 봉사의 왕관에 뭔가 빠진 게 있다면, 그럴 경우엔 거기서도 역시 너희는 작은 왕관이나 또는 홀결의 왕관에 대한 권리만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될 텐데, 왜냐하면 백성들 역시 빛의 왕관은 가질 것이며 그들도 순수한 영혼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계의 황제나 또는 그냥 황제의 왕관은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가 등수대로 왕관을 가진다, 일부는 황제, 나머지는 왕일 것이다. 일부는 황제, 일부는 세계 황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옥좌를 보라! 지금 브라민 생에 너희는 각자 얼마나 오랫동안 불멸의 옥좌에 앉아서 머물고, 또 가슴의 옥좌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머물러 있느냐? 만일 너희가 변함없이 각자의 불멸하는 옥좌에 앉아 있다면, 즉 항상 자기의 불멸하는 옥좌에 앉아 있다면, 너희는 영원히 가슴의 옥좌에도 역시 앉아있게 될 것이며,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일 너희가 브라민 생에서 오직 이따금씩만 옥좌에 앉는다면, 그 경우에는 미래에도 역시 반 사이클 동안 옥좌에 계속 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가 왕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오직 왕족들만이 옥좌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항상 옥좌에 앉아 있으면 미래에도 영구히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것이다, 즉 너희는 항시 옥좌에 앉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거울에 너희의 현재 단계가 무엇이며 미래 너희의 단계는 무엇일지 비쳐보아라. 마찬가지로 너희의 톨락도 점검해라. 너희의 톨락은 불멸하는 그런 것이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톨락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신인들 중의 신인이며 신의 자녀가 된 행운의 톨락을 받는 것은 오직 합류시대에 뿐이다. 이렇게 너희들의 수하그 (수하그는 신과 결혼했다는 행운)와 너희들의 복의 톨락은 불멸하는 것이냐? 마야가 너희의 수하그와 너희 행운의 톨락을 지워버리지 않는지? 지금 이때에 수하그와 행운의 톨락을 항상 갖고 있는 자들은 미래에 왕국의 톨락을 언제나 가질 것이다. 매 생마다 너희는 왕국의 톨락을 받는 축하예식을 경축할 것이다. 왕과 더불어 왕족들까지도 톨락을 받는 날을 축하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매 생마다 왕국의 톨락을 받는 축하행사를 축하할 것이다. 여기서 브라민의 생에 너희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축하하고 끊임없이 상승하며 모든 면

에서 봉사하려는 열성과 열의를, 즉 생각, 말,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열성과 열의를 한결 같이 가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가진 열의 (우트사)가 미래에는 너희들의 축제(우트사브)로 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몸, 마음, 부도 연결되어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의 몸을 봉사에 바쳐왔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마음을 봉사와 기억에 써왔느냐? 마음을 통한 봉사는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봉사하는 동안 너희의 봉사가 제한되느냐, 무한하냐? 너희는 모든 이에 대해 좋은 염원과 고귀한 느낌을 가지느냐,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갖고 나머지들에게는 갖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는 돈을 이기적인 동기로 쓰느냐, 아니면 봉사를 위해 사심 없이 쓰느냐? 너희에게 위탁된 보물들을 돌보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부정직하지는 않겠지? 무한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한정된 것에 그것을 쓰지는 않겠지? 이런 유형의 점점을 토대로 너희는 각자 보상의 퍼센티지에 따라 등수대로 지위를 얻을 것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가 완전한 퍼센티지를 가진다면 그럴 경우엔 전체 기간 내내 보상을 완전히 다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지위와 시간의 길이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 전체 기간 내내 보상을 완전히 다 받게 된다면 너희는 1-1-1, 즉 1년 1월 1일에 올 것이며 그때는 자연이 완전히 사토프라단할 것이다. 너희는 맨 첫 1초부터 왕국의 행운을 완전히 다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보상은 하나, 자연이 너희에게 주는 행복도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브라민의 모습과 신인의 모습, 너희들의 양쪽 모습을 다 체크해라. 합류시대의 너희 모습과 황금시대의 모습, 둘 다 너희 앞에 놔두어라. 합류시대에 이것을 둘 다 가진다면 너희가 황금시대에도 그것을 역시 가지리라는 것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브라민의 생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16가지 장식품들을 모두 봐라. 너희들의 천상의 16도를 하나씩 모두 다 살펴봐라. 너희 자신을 보고 어떤 약점이 눈에 띄든 계속해서 모두 제거해라.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거울에서 너희 자신을 보아라. 앗차.

오늘은 마하라시트라에서 온 자들의 순서여서, 바바는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 마하라시트라는 지금 위대하고, 미래에도 역시 위대하다는 뜻이다. 앗차.

그렇게 무한한 봉사자들에게, 모든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들에게, 기억과 봉사에 대해 한결같이 열의를 가지는 자들에게, 그들의 수하그와 행운의 틸락을 변함없이 가지는 자들에게, 현재 왕족의 장식품들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오늘 전등이 시시때때로 깜빡거렸고 그래서 바바는, 전등불이 동요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지각도 역시 동요되고 있지는 않겠지? 라 했다. 신봉자들은 너희들의 이 물질세계를 언급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신에게 “당신의 세계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보소서”라고 노래 부른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역시 이것을 본다. 신봉자들의 소리가 그에게까지 도달하고, 신봉자들 자신도 역시 이것을 본다. 이 세상은 이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일컬어지거늘, 편의시설들인들 너희에게 무엇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앗차.

아비약트 밥다다와 마하라시트라 지구 그룹과의 다정한 만남.

1. 합류시대에 모든 보물들 중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나? 아버지는 모든 보물들 중에서 최고의 보물이다. 아버지를 찾았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찾았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없다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너희는 심지어 황금시대에도 모든 보물들 중 최고인 이 보물은 갖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보상을 가질 테지만 이 보물은 없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너희가 모든 보물들을 받겠지만 합류시대에 너희가 받는 보물들은 황금시대의 보물보다 도리어 더 크다. 그러므로 영혼인 너희들이 모든 보물을 다 받고, 또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영혼이라는 것도 역시 아는 그러한 시대에 너희가 완전하고 완성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브라민 생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인의 생에서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가지지 않지만, 브라민 생에는 너희에게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르는 영원한 노래는 우리 브라민들의 보물창고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네, 라는 노래다. 너희들은 보물들의 주인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아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주인들이 되었지만, 그것은 너희 각자가 그 보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등수대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녀이며 주인이라는 행복 속에 끊임없이 계속 춤춰라.

2. 너희들 모두 지각에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느냐? 믿음이 동요되게 놔두는 일은 결코 없겠지? 너희는 흔들림 없고 부동한 마하비르들 아니냐? 마하비르의 특별함이 무엇이나? 그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하다. 그런 영혼들은 꿈속에서도 낭비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흔들림 없고 부동한 마하비르라 한다. 너희들은 이와 같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익이 들어있다. 그것을 현재는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발전함에 따라 그것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한 측면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마라. 모든 것을 트리칼다르시 (시간의 세 측면)의 시선으로 보아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트리칼다르시로서 모든 것을 볼 때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유익이 있다고 항상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트리칼다르시로서 전진하느냐? 봉사에서 도구가 되는 자들이 더 강할수록 봉사라는 건물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바바가 하라고 이르는 것은 뭐든 계속 행해라! 그러면 그 책임은 바바와 그의 일에 달려있게 된다. 너희들이 하게끔 바바가 만드는 일을 너희가 계속하면 그것 안에 유익이 들어있다. 바바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일은 무엇이든 계속해서 행해라! 항상 “지 하지르” (제가 여기 있다)라 해라. “이게 왜 이렇지?”라고는 생각지 마라. 늘 “지 하주르” (예, 나의 주님) 혹은 “지 하지르” 해라. 이해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가벼워졌을 테니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날아다닐 것이다.

3.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을 세상의 수십억 영혼 중에서 한 손으로 꼽을 소수의 일부이며 선택된 그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일 뿐인 고귀한 영혼이라고 여기느냐?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칭송이라고 느끼느냐? 하나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이를 너희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한즉 너희가 지난 사이클의, 세계 전체에서 한 손으로 꼽을 영혼들 그 중에서도 고결한 극소수의 영혼이라고 느끼느냐? 그런 영혼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은 항상 불꽃인 아버지에게 그들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는 나방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주변만 빙빙 도는 영혼들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단지 와서 빙빙 맴돌고 약간의 성취를 경험한 뒤에 사라지는 영혼들이 아닐 것이다.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친다 함은 죽는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제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고 죽는 나방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에 타 죽는 것은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불타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속한다. 불에 탄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앗차.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고 안정해 머무는 쉬운 방법이 무엇이나? 모든 이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너희들이 한 분의 아버지, 하나의 집에 속하고 너희들 모두가 하나의 왕국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모두의 단계가 한결같고 안정되게 해라. 너희의 단계를 한결같이 안정되게 유지하는 어떤 쉬운 방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느냐? 그걸 단 한 마디로 말해봐라! 그 한 단어는 “관리인”이다. 관리인이 되면 사랑하면서 초연하기 때문에 너희는 자동적으로 한결같고 안정된다. 너희가 가정을 가진 자일 때는 온갖 맛 (너희들의 관심을 끄는 사물들)이 다 있다.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때로 너희는 “내 가정, 내 가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가정을 가진 자라 함은 갖가지 흥미를 가지고 비틀대며 헤맨다는 뜻이다. 관리인이라는 것은 한결같고 안정된다는 뜻이다. 관리인은 변함없이 가벼울 것이며 그의 단계는 항상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 이 그룹 전체가 관리인들의 그룹 아니냐?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너희가 가정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너희에게는 애착이 있다. 애착을 가진 자들은 관리인이 아닌, 가정을 가진 자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가정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또 가정을 가진 자로서 삶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도 역시 너희는 안다. 자 이제는 관리인이 되어라! 만일 아직도 가정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을 약간이라도 갖고 있다면 여기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마두반에 두고 가거라. 슬픔의 파도를 일으킬 것은 뭐든 뒤에 남겨놓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 것들만 갖고 돌아가라. 앗차.

다정한 다디지가 암발라에서 열리는 멜라에 참석차 떠나기 전 밥다다에게 작별인사를 함.

밥다다는 많은 자녀들의 행복을 보며 매우 기쁘다. 봉사하려고 어디를 가든 너희들 중 많은 수가 갖가지 보물들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드라마에 너희들이 가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이것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멈출 때는 1초면 될 것이다. 사카르 형태에서 바바에게 어떻게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이 봤지만, 온갖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도 그 배역이 끝났기 때문에 바바는 갈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에서 이 배역이 끝날 때는 1초 안에 갑자기 끝날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가서 남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너희는 모든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도 역시 가장 큰 자선이다. 모든 이가 너희들을 불러내고 있다. 너희가 불리면 너희들은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살아있지 않은 형상들을 불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경험한다. 너희를 부르는 그들의 그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이에게 사랑과 기억을 줄 때 그들에게 “말을 통해 봉사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은 봉사의 최종적인 강력한 형태, 즉 생각의 힘을 통해서도 역시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라. 생각의 힘이 말의 힘과 합쳐지면, 즉 마음을 통한 봉사와 말을 통한 봉사가 결합되면 너희는 쉽게 성공을 달성할 것이다. 한 가지 방식만으로 봉사해서는 하나의 결과만 가져올 것인 반면 양쪽이 결합된 형태로 두 방식 모두로 봉사하면 결과가 곱절로 올 것이다. 첫째가 생각의 힘이고, 그 다음이 말의 힘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통한 봉사와 말을 통한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말을 통해서 봉사할 때 너희는 마음으로는 봉사할 수 없고, 마음을 통해서 봉사할 때는 너희가 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게 하지 마라. 말로 봉사하는 자들이 몇 명 있지만, 다른 일에 참여해서 뭔가를 돌보는 자들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라. 이를 통해서 분위기가 매우 요그육트해진다. 집회에서 더 많은 만남이 생기고, 만남과 더불어 봉사의 목표도 역시 있게 해라. 너희들 각자가 봉사해야 한다고 느낄 때 분위기는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봉사가 곱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성과 열의를 지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열성과 열의와 더불어 이 목표도 역시 가질 필요가 있다. 앗차, 모든 이에게 많은 기억을 전해라.

축 복: 심플해지고 샘플이 되어 평범함을 통해 너희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뭔가 단순한 것이 깨끗하면 그것은 반드시 남들을 끌어당긴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 관계, 남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생각이 단순한 자들은 본보기가 되어 자동적으로 남들을 그들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 단순하다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다.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평범함에서다. 평범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 단순하지 않은 자들은 문제가 된다.

슬로건: 진심에서 우러나 “나의 바바”라 하면, 마야가 의식을 잃게 해서 감졌던 너희의 눈이 뜨일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